

야 너 제발 쪽지 좀 그만 보내라 -2

By Jack

제 목 군필자님 게시글읽고 보내요

보낸 사람 metallove (금속사랑) 받은시간 2014-12-27 14:06:24

정신차리게 욕 좀 해주세요.

당장 욕을 할 수는 없고 ㅋㅋ 무언가 자극을 받고 싶으신 모양인데, 오르비에 옛날에 적어
던 글을 싣겠습니다. 제 아이디 검색하면 나옵니다. ㅋㅋ

어리광을 어디까지 받아주어야 하나

원아이드작성일 14-09-11 18:52 IMIN 521447MS 2014 조회수 11,782

오늘은 무언가 또 이야기를 해야할 시간이라 생각되어 글로 써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가 맨날 다들 연고대 못간다, 숨도 안쉬고 집중해서 공부해야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고등학교인 민사
고는 밤 12시가 되면 점등에 들어갑니다. 민사고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불이 들
어오는 화장실에서 몰래 공부를 하거나 휴대용 후레쉬를 켜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대성에 가면 54명중에 53명이 연고대 재학생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
리고 여러분들보다 부자입니다. 정보력도 훨씬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지고 의대정원이 늘어나는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이 올해 수시를 몇 명으로 뽑으며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졌을때 가산점을 받으며 논술은
어떤 성향을 가진 교수가 출제한다 이런걸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급정
보는 인터넷에는 안 떠돕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
러분들이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이랑 경쟁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실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학생들은 원래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거기에 다가 여러분들 보다 더 노력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입
으로만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떠들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연고대는 커녕
수능에선 부산대도 못가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수능을 치면 모의고사만큼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노력해서 내가 부산대가라고 하면 기분나빠합니다. 참으로 어
이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진도도 다 못나가서 조금만 심화되는 문제만 나와도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십시오.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
러분들이 앞에서 말한 학생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사회는 경쟁사회입
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어리광부리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투정부릴 시기는 지났습니다. 노력만이 답입니

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양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까불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모의고사 잘 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수생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문적인 깊이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노력하면 다 90점 넘습니다. 당장 저 옆 반에서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적어도 3배는 어렵고 양이 많을 겁니다. '아 나는 점수가 좀 나오니 머리가 남들보다 좋은가보다 조금 슬슬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점수가 조금 부족했건 많이 부족했건 다 똑같습니다. 단순히 그걸 운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는 운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작년처럼 하다가는 올해도 운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수 오수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왕년에는 몇 점을 받았다. 운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로스쿨 얘기를 해볼까요. 학교에 가면 한 학년 120명중에 서울대가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생입니다. 그리고 연고대까지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나머지도 다 의사 경찰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회계사 변리사 이런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절대 자만안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왕년에 공부 좀 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거보면 아무도 자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도태됩니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겨우 대학도 못간 주제에 허영심, 자만심만 가득차서 노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합니다. 나는 어제 시험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 이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합니다. 솔직히 대입까지는 크게 노력 안해도 운빨이 통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양도 많지 않을뿐더러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하건대 대학을 가서 노력을 안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대학레벨을 넘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 깊이와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런데 고교수험생시절에 남들보다 약간 뛰어난 머리만 믿고 노력을 경시한 사람은 그러한 단계를 못넘어갑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내가 법학전공자라 예를 드는데 계속 법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등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민법만 얘기를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민법은 개념교과서만해도 보통 4500페이지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민법에 대한 판례를 보려고 하면 여기에 3천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문제집을 사면 여기에 또 2000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사례집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벌써 만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에 같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혼신을 다하는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뛰어난 머리로 온 좋게 온 사람 중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본격적인 경쟁레벨에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다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만해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것보다 자극적인말로 자존감을 낮춰서 더 노력하도록하여 성공시키는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데서 불행이 옵니다. 최대한 낮추십시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막연한 기대감으로 좋은 대학을 바라지마십시오. 외

면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리광은 그만 부려야 합니다. 짧은 날의 낭만이니 자유니 그런 거 지금은 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포기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졸업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도 졸업하고 이십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낭만이니 자유니 찾다가 내년에 또 공부해야할 겁니다. 잠시 포기하고 내년에 즐기십시오.

모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학 30점, 영어 36점 받고 둘 다 최하위반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니까 수능 때 둘 다 100점 받았습니다. 내가 되면 여러분도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나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고 조금 어긋나도 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 때야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극이 된다면 웬만한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꿈을 이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못 이룬 채 되는데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며 그렇게 되는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한창 꿈을 가지고 젊음을 즐기며 존중받아야할 여러분들에게 패배자니 아무것도 아니니 운운하는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서열화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와 사회전반의 인식을 혐오합니다. 왜 다들 공부를 잘 해야만 합니까. 다 자기 적성이 맞는 분야가 있는데. 하지만 그건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음에 안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바꿔 보십시오. 열정이 없고 걱정도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던 놈두면 됩니다. 어차피 학생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든 말든 나랑 크게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돈은 일정할 것이고 몸도 안 피곤할 것이고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꼴에 선생이라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든 말든 안 좋은 소리 한 번이라도 더 하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걸 보고 싶습니다. 질리도록 얘기합니다.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대학시절 지도교수가 항상 술자리에서 법대생들을 모아놓고 하던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즐거운 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학문에 정진하여 모두 장원급제 하십시오.

제 목 군필자님 게시글읽고 보내요

보낸 사람 rothy57 (로시로시) 538037

받은시간 2014-12-28 14:06:24

몇번씩이고 다시쓰네요ㅜㅜ

아까 잘못발송해서 삭제하고 다시 보내긴했는데 혹시 두개가 갔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 앱르비 쓰기힘드네요....

저는 예비고3문과 현역입니다

11모 성적을 첨부하는게 파악하시기에 빠를것같아서.. 여기는 아쉽게 표첨부가 안돼네요

국어 85(2등급) 수학 39 (4) 영어 82(3) 사탐은 ㅅ생윤과 사문 2,3 또는 3,2

사탐은 결국 법정으로 결정했고 다른 한과목은 둘중 택하려고합니다

보시다시피 수학이 심각한 상태이고 영어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영어는 많이 쉬운편이었는데도 지문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저는 쉽다고 느낄만한 난이도는 아니였네요ㅠㅠ

어떻게 공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국어는 ebs개념강좌 나비효과 듣고 복습하고 마달기출을 풀 생각이였고요

윤혜정선생님은 작품별 정리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어 공부법은 너무 막연하구요 우선 저는 이번 문법은 다맞았지만 문법이 약하고요 화작문도 의외로 시간을 꽤 잡아먹어서 그것도 놔 해야할것같고 비문학이 제일 약해요

이번 11모에서도 거의 비문학을 틀려놔서.. 과학,기술지문 그냥 전체적으로 독해법이 부족한것같아 국정보로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래도 국어공부법은 너무 막연한 상태이구요

수학은... 우선 정승제선생님 개념강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프리패스를 끊어두었고 3월까지 지는 기출보다 개념잡들으면서 하려고 생각하고있고 학원도 다닐거같은데.. 혹시 제가 올린 게시글보실수 있다면 봐주셨음 해요ㅠㅠ

이게 정말 고민이라..

수학은 3점짜리 문제에도 찢찢매는지라 개념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할것같고.. 일단 이게 급선무라 전체적인 일년커리를 생각할수 없네요 ㅠㅠㅠ...

어떻게 해야가야할까요 적어도 3월까지의 개념잡기생각중입니다...

영어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잘 맞는것같아 다니고 있는데 따로 학습이 필요할것같고 특히 어법이 많이 약해 로즈리 ebs강의 생각중이고요 어법을 좀 갖춘다음 구문을 들어가는게 좋지않을까 싶어 그다음 이아영마법노트를 들을까 생각은 하고있는데 영어 사설강의는 잘 몰라서 ㅠㅠ 리로직..막 이렇게 이름은 많이들어봤는데 어떤강의들인지 잘 몰라서 영어 공부도 길이 안잡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조언이나 좀 잡아주실수 있는지 ㅠㅠ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전체적 조언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쪽지가 너무 많이 와서...
국어	작품 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영어단어 4800->3500개 연계 올해부터 1300개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국어와 탐구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인데, 따라서 국어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문학은 여러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할 것이고, 비문학은 독해력이 좋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 별로 정리하십시오. 현역인 것을 감안하여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하니 인강은 최소한으로 잡겠습니다. 나비효과 -> 고전문학 EBS(40강) -> 마르고 닳도록 :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으로 공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국어성적이 들락날락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근거 없이 답을 고

	른다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왜 2번을 했냐고 물어보면 ~라서 2번 했다고 대답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2번과 4번 중 4번은 아닌 것 같고, 2번이 맞는 것 같아서 했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만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광일 '따옴표'정도 추가해주십시오. 5강 짜리 문법강의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수학'을 듣고, 강약조절을 하신 후에 개념원리를 기본서로 옆에 놔두고 수1,미통기 개때잡을 듣다가 수1부분이 나올 때 마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개때잡은 무조건 2-3번 들어야 합니다. 빨리 돌리십시오. 그리고 기출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길어야 2달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개때잡으로 여러번 돌린 후에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 뒤에 한석원 모의고사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학원다니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혼자서 정리를 안해서 그 점수일겁니다. 저도 수포자였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수학을 싫어해서 많이 하지 않았고, 한다고 해서 쉽게 쉽게 누가 떠먹여줬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설지는 저리 치우고 답안 나오면 나올 때 까지 하십시오. 해설보고 대충 넘어가면 또 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때잡의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영어	이투스 최원규 '원리문법', 'ST' 2번 들으신 후에 마더텅 기출을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EBS추가 후 모의고사 여러번 돌리시면 됩니다. 공부법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 목	염치불구하고 꼭지 보내봅니다.
보낸 사람	seniormine (나도뽀수되고싶다) 549950 받은시간 2014-12-29 00:26:08
안녕하세요. 예비고3인 남학생입니다. 이제 종업식 날이 오고 겨울방학 때가 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애초에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니다. 11월 모의고사에서 국어4 수학2 영어3 동아시아사 3 한국지리 3을 맞았었습니다. 저번주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좀 노는 분위기였는데 마침 수시합격하신 선배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3월 전국,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뭐 수능성적이다.. 다 개소리니까 끝까지 열심히하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 공부하는거 연고대 함 가보자라	

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정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자사고 재학중인데 학교초 부적응도 있었고 마음을 잡지못해서 내신면에서 희망을 거의 잃었습니다. 평균 5~6등급 대이구요 논술은 제가 글을 잘 못쓰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일찍이 접었습니다. 수시를 버리고 정시 하나만 생각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은 압니다만 저로선 선택의 도리가 없네요.

그래도 앞으로 내신기간은 2주 정도만 뻥시게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신기간에는 제가 멘탈잡고 수능공부.. 못하더라도..

하여튼 수능공부를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는데 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나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강의를 생각했습니다.

국어는 윤혜정의 나비효과로 개념잡고 기출적용 연습하면 되겠구나.. 생각했구요

수학은 심주석 선생님 개념강의 따라가면 어찌어찌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구요.

영어는 이명학 선생님 systax 1.0강의 들으면서 해석 실력을 좀 늘려야 겠다고 생각했구요.

사탐은 3학년 시간표에 들어가는 윤사랑 2학년 때 하던 동아시아사랑 하기로 생각했습니다.(학교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치셔서 개념은 ebs강의로 조금씩 보충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마 저의학교가 동아시아사 전국1등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맞는건가하고 불안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오르비 잠깐 와봤는데, 오늘 많이 읽힌 글에 answer 갓정재님이 쓰신글을 봤습니다..

국어공부법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인강을 보조적 수단으로 써야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반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출을 16회 정도 풀어보고 인강을 활용하라고 하셨구요..

국어 뿐만아니라 전과목 전체적으로 인터넷 강의 선생님 지도하에 계획을 짰는데

뭔가 갓정재님 말씀들어보니 내가 너무 인강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들고.. 혼란스럽네요..

이에 대해 의견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 조언	아닙니다. 흠잡을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공부법으로 더 이상 혼란 갖
--------	---

	지마시고, 끝까지 그걸 완수하려고 하십시오. 공부법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정도만 하면 완벽합니다. 공부법으로 여러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십시오.
제 목	프랑스어에 대해서
보낸 사람	poja0214 (포자번식) 534672 받은시간2014-12-29 01:08:00
예비 고3인데 제2외국어 프랑스어로 보는거 추천하시나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ππ	
전체적 조언	추천안합니다. 베트남어 하세요. 프랑스어는 만점받기 힘듭니다. 제 2외국어는 노력대비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주된 공부는 탐구가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어나 아랍어 하세요.
제 목	원아이드 쌤께
보낸 사람	dmg04190 (dmg04190) 549801 받은시간2014-12-29 11:33:02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인 학생입니다. 평소 원아이드 쌤의 글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이 모의고사가 3~4등급인데 수1이 너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심주석 선생님의 강의를 저에게 맞는것 같아서 수능개념을 들으면서 기존에 있던 정석을 보는데 정석에 저한테 잘 안맞는지 강의듣고 이해해도 정석 연습문제를 풀면은 너무어려워서 못풀겠고ππ 1학기때 썬수1한권을 다퐁적도 있었는데 내신이 잘안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몰라 쪽지를 드립니다.ππ 복잡하게 말했는데 ..이해해주시고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학	정석은 올드합니다. 정석 버리십시오. 웬만하면 이런얘기안하는데, 현재 수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완강 후 개때잡 2번 돌리고 기출 다호라 4번 풀고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제 목	논술
보낸 사람	ptm0083 (신권가능) 516734 받은시간2014-12-30 13:35:51
논술을하라하시던데 제가내신이 4,후반대거든요 논술써도되는내신인가요?.. 만약한다면어떻게공부해야하죠?	
논술	제가 쓴 글을 검색해보시면 Basic(1)에 학교별 전형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신 실질반영률에 대한 글이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4점 후반대면 불이익 없습니다. 논술은 제가 오르비에서 곧 논술책을 출판할 예정인데, 당장은 책이 없으니 제 아이디를 검색해서 The_logic시리즈를 보길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논단기 김윤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후에 7월 이후로 첨삭해주는 학원을 다니시면 되겠네요. 서울이면 오르비 논술학원을 이용해보십시오.
제 목	감사합니다 ㅎㅎ.
보낸 사람	jln7434575 (옴깁) 482451받은시간2014-12-30 13:38:39
올해수능등급은 35533 이과구요 탐구는 생1지1 이에요 원랴모위고사치면 34433정두뜨고 요번수능은..여튼 목표는 높게잡고있어요	

국어는 마달만할려했는데 그래도 인강필요할꺼같아서.. 커리좀가르쳐주세요

수학은 한완수눈있고 수비살려는데 어떤순서로공부할까요.. 다호라도있어요
인강 쌤은 신승범 이창뮤.한석원 생각중임다
커리부탁드릴게요..

영어는 상변쌤. 풀커리탈려는데....어떤가요

생물은 백호쌤이랑 최정윤쌤중에고민인데
스카이에듀 프리패스덕에 최정윤쌤쪽으로몰리네요

지학은 스카이에듀지학쌤하든지 어님.오지훈쌤 풀커리탈려해요

국어	EBS고전문학(40강)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달 3-4회독 -> 전형태 '형태잡기 문법' -> EBS추가 -> 각종 모의고사.
수학	수비사지마시고 한완수를 여러 번 돌리십시오. 한권을 여러번 하는 것이 여러권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다호라 돌리십시오. 제 생각엔 신승범 수능적해석 돌리면서 + 한완수 이후에 다호라 -> 그뒤에 각종 기출
영어	상변쌤 풀커리 타면 됩니다.
탐구	그래도 백호쌤을 추천합니다. 지학은 오지훈쌤으로 하십시오.

제 목 예비 고3 국어공부법

보낸 사람 ki04172 (여기서뭇하니) 531925 받은시간2014-12-30 14:26:25

국어는 1~3등급 왔다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뽀록이라는 거죠... EBS 제외한 교재로 커리좀 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

국어	전형태 '형태잡기 고전문학'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닳도록 3-4회독 -> 전형태 '형태잡기 문법' -> 국가대표 모의고사.
----	---

제 목 안녕하세요!

보낸 사람 zhdkffkdhor (쏘잉) 507156 받은시간2014-12-30 14:26:59

안녕하세요 원아이드잭>?님 저는 예비고3이과생입니다 11월말 기말고사3주전에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한 외고생입니다. 문과로본 모의고사는 6월 111 11월 211 이 나왔습니다. 영어는 ebs가나오면 그것만 할 생각입니다. 따로 인강이나 문제집을 들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아니면 ebs만 하더라도 다른 문제집을 할필요가있을까요?> 내신으로 학교에서 ebs를 한다면 10회독정도는 할거같습니다. 국어는 좀 약해졌습니다 ㅠㅠ 공부를 안하다보니 까... 마달을샀어서 그거 1권을 지금1회독을 1월까지 끝내고 3회독까지 3월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이과국어를 100점 맞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수학은 적통중간부분을 나가고있는데 풍산자라는 개념서로 1월까지 기백까진 학원에서 개념한번씩 돌릴 예정이고 정석이랑 기출문제풀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인강은 되도록 안들을 생각입니다.. 과학은 생1지1을 선택할 예정인데 2과목을 선택하는것은 현재 연대 화생공이 목표인 저로서는 상당한 욕심을 부리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자로 개념서를 샀고 이투스 백호쌤이랑 오지훈선생님 개념강의를 듣고 저만의 복습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제목표는 국어 100 수학 2등급상위? 1등급 컷이라도 $\pi\pi\pi\pi$ 영어는 100 과탐은 11만맞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이과컷이 어느정도인지 잘모르겠어서.....	
영어	EBS연계 N제가 빠지고 단어 1300개 줄어듭니다. EBS연계만 기대지 마십시오. 이명학 '강대영어'추가하십시오.
국어	예. 충분합니다.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10명넘게 그렇게 해서 100점 받았습니다.
수학	충분하긴 합니다만. 인강을 안듣는다면 수비나 한완수를 푸시는게.... 너무 올드한데요. 공부법이. 수능적합성이 떨어집니다. 또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은 100점에 수렴하지 않으면 2등급도 보장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너무 고집 부리시는게 아닌지..
탐구	맞습니다.
제 목	공부법 관련 질문입니다
보낸 사람	heaven0724 (96GIRI) 516935 받은시간2014-12-30 14:45:15
안녕하세요 이번 2015수능을 본 이과생입니다. 수능 등급이 46544가 나왔는데요 재수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11111입니다. 으음... 다른 사람들의 쪽지 답변을 보면 인강을 많이 추천하시던데 인강은 조금만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정 중략입니다.) 정승제의 '개념 때려잡기'나 심우철 '12시간 문법' 같은건 지금 시기의 인강이 아닐까 싶어서 아마 못 듣고 다른 공부로 돌려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후에 박광일 '따옴표' 같은 인강은 구매하여 들을 수 있을것 같네요 (으음... 부터 여기까지는 pdf파일에 쓰실때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저의 이번 수능이나 모의고사, 다음 수능에 있어서의 공부방법을 보자면...

국어는 화법.작문에선 틀리지 않는편이에요
만약 틀린다면 1문제정도?

독서도 틀리지 않는편인데 이번 수능에선 3문제를 틀렸네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시의 3점짜리와 고전시가에서 틀릴때가 있어요

나머지 틀리는건 전부 문법이네요

이번엔 윤혜정 나비효과를 본 뒤에 EBS 고전문학 (40강)을 듣고 문법을 공부할 생각인데
뭐로 공부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수학은...

문제를 풀때 '아 이건 어떤 파트고 어떤 공식을 쓰면 풀 수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못풀고 점수가 안 나오는걸로 봐서는 아마 개념이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으로 유제, 예제를 3회독 하고
뒤에는 수비를 본 후에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정석은 연습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안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집을 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사서 하루에 200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해석할때 모르는 단어가 많은게 역시 단어를 외워야 할듯 싶어서
수능 2000으로 외우고 나머지는 ebs에서 외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것처럼 문법은 Penand.co.kr의 문법책을 쓸거예요.

듣기도 수시로 들을 생각이고... 뭔가를 더 해야할것 같은데 뭘 더 하면 좋을까요?

과탐은 아직 한과목은 화학I과 생명과학I중에 안 골랐는데
뭘 골라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bs를 볼까 생각하기도 하고말이죠

다른 과탐은 이번에도 봤던 지구과학II를 볼 생각이예요 ebs 송원희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ebs로만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 자신과 공부의욕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어	나비효과 -> EBS고전문학 -> 초단기 국어문법 -> 기출 마르고 닳도록 4회독 -> EBS추가 ->국대 모의고사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절 믿으십시오.
수학	정석 버리시고 EBS 심주석 선생님 개념강의 수1, 미통기 (총 45강) 하 시고 오르비북스에서 수학영역의 비밀 사신후에 풀고 다호라 기출문제 집 4회독 -> EBS 연계 추가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경선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바꿔보십시오. 제가 이걸로 공부했었습니 다. 경선식 수능 영단어 한 권만 사시고.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말이 안되더라도 책의 해마암기법으로 외울 것.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 니다. 그리고 오늘 1,2 강을 봤다면 다음 날은 1,2,3,4강 다다음날은 1,2,3,4,5,6강 다다다음날은 1,2,3,4,5,6,7,8 이쯤되면 1,2강에선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으니 10초만에 넘어가고 다음 번부터 안봐도 됩니다. 단어도 못 외우는 것만 계속 못외웁니다. 이렇게 하면 못외우는 걸 잡 을 수 있고 한 번에 5회독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어 인강은 윤장환 선생님 EBS강의 들은 후에 마더텅 기출로 분석하 십시오.
과탐	탐구는 EBS보다는... 사설 인강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한 번 재고바랍니다.
제 목	예비고3 공부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ap1421 (불한동) 547524 받은시간2014-12-30 15:59:35
안녕하세요. 예비 고3 자연계학생입니다. 이번 11월모의고사 연수외물화 44543입니다. 제가 수능날까지 계획표를 짜봤는데 더 추가할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국어는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를 듣고 마달 3회독하면서 EBS분석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원래 한석원의 알파테크닉을 들으려 했으나 혼자 공부하기엔 무리가있을거 같아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영어는 아는게없어서 심우철 프패를끓고 12문과 명품보카순으로 진행하면서 후에 EBS와 자이를 풀생각입니다 물리는 배기범 개념과 문풀을 들을 예정이고 화학은 고석용 개념과 문풀을 들으려합니다. 수능날까지 열심히 할생각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	OK

수학	학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수비나 한완수정도 추가해주세요.
영어	자이 -> 마더텅으로 변경 (유형별 분석이 점수 상승의 지름길)
탐구	다 좋은데요? 제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보입니다. 이시간부터 공부법에 대한 고민하지마시고 무소의 뽕처럼 전진하시길^6
제 목	공부법 질문이요ㅠㅠ!!
보낸 사람	sunao913 (고대자전16학번) 489728 받은시간2014-12-30 16:50:01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입니다. 제 공부법이 옳은 방향인지 여쭙보려고 이렇게 쪽지를 씁니다.. 일단 제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는 집중이 잘 될때는 2등급, 컨디션 난조일 때는 4등급이 나옵니다. 그냥 3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는 4등급이 나옵니다. 국어는 나비효과 문학 파트 완강 후 문법을 한 번 정리한 다음에 마달로 갈 생각이구요 수학은 정승제 선생님 커리를 쭉 탈 예정입니다. 영어는 문법 정리+현재 풀고 있는 자이스토리 완성편을 끝낸 후 수특과 자이스토리 실전편을 푸려고 합니다 사탐(사문+윤사)는 이지영 선생님 커리를 쭉 탈 예정이고요! 제 공부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낌없는 수정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전반적 공부법	영어 자이스토리 ->마더텅으로 변경하십시오. 유형별로 풀어야 성적 오릅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곳 없습니다. 제발 공부법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계획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제 목	예비고3문과 상담이요
보낸 사람	03c3da9907d3d6759377 (ydys) 535590 받은시간2014-12-30 18:56:16
예비고3 문과이고6월학평 국영수 213이고 11월 학평 등급은 국영수 122 나오구요 인서울 4년제400명중에 250명 정도 보내는 인문계여고에서 내신은 2점대 초반입니다 국어는 윤혜정 나비효과 5강 정도 여름방학에 들었었구요 국어의 기술 1권 완성하고 매3비 10일차 정도풀었구요 기출은 그동안 심화반 하면서 꽤 많이 푼것 같습니다 권규호 국어의 정석2.0 그거 들으려고 했는데 거의 아는내용이라 그냥 자이스토리 문학 개념어 완성 풀고 있구요 마달 나오면 풀생각중입니다 국어 문법인강은 언제들어야 하나요? 아직 국어 인강 필요성은 못느끼는데 들어야 하는지 걱정은 됩니다 수학은 그냥 정석이란 개념쎈 간단히 보고 자이스토리수학1 복습하려고 하구요 신승범 쌤 커리 타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서 그냥 독학하려고요 영어는 선택스 인강 완성하고 어법기출문제랑 어법끝 병행 하면서 단어집 하나 골라서 복습하려고 합니다 단어집선택은 아직 못했구요..그거랑 입시	

플라이 5개년 수능기출 풀면서 문장노트 만들어서 복습하려고요 영어 어법인강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법도 독학이가능한가요?? 사탐은 이기상 프리패스 끊고 한지 세지 인강만 들으려고합니다 중학교 부터 고등학교 내내 학원 과외 없이 혼자 독학하구 있구요 전체적인 방향 수정좀 도와주세요ㅠㅠ 인강 듣는것보다는 독학이 좀더 잘맞는편입니다	
국어	인강 안들어도 되는 실력이네요. 국어 문법 인강은 전형태 '형태잡기 문법'이나 박광일의 '따옴표'들으면 됩니다. 강의가 짧아서 언제들어야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당장 들으십시오. 마달로 계속 하십시오.
수학	올드한데요. 신승범 쌤 커리는 너무 깁니다. 긴걸 싫어한다면 EBS심주석 수1+미통기(45강) 한 번 듣길 추천합니다. 그 뒤에 수비 -> 다호라 가십시오. 정석이고 썸이고 그런 건 버리십시오.
영어	단어집 - 경선신 수능 영단어 어법 독학 가능하긴 한데, 힘듭니다. 최원규 '원리 문법'을 들으십시오.
탐구	좋습니다.
제 목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sunset0201 (sunsetshell) 549399 받은시간2014-12-30 19:05:25	
바빠실 거 알지만 너무 막막해서 쪽지 보냅니다. ㅠㅠ 이제 고3이고, 문과입니다 국어는 작년까지는 감으로 풀어도 1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점점 내려가더니 3까지 찍었고, 다시 좀 올려서 11월 모고 2입니다. 국어는 한번 내려가면 끝도 없다고 해서 주변에서 추천하는 윤혜정 나비효과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문학 작품은 정리 안 해도 될까요?? 딱히 이제까지 국어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감도 안잡힙니다 비문학은 매3비 사서 그 공부법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과학지문에서계속잡혀서ㅠ) 문법은 이번에 학교에서 겨울에 특강해준대서 그거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영어는 꾸준히 1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감 잃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모의고사 2~3개 풀고 있는데 뭘 더 해야할까요.... 아 영어에서 발목잡히는건 단어와 문법입니다.. 단어는 단어장따로 사는건 다들 말리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문법은 자이스토리 어법어휘매일풀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사탐은 사문/생윤합니다. 사문은 작년 내신타에 공부 다 해서 기출로 풀고, 생윤은 ebs이지영쌤 인강 들으면서 개념서+문제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탐 교재 좋은게 뭔가요ㅠㅠ?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ㅠㅠ 주변에 조언받을 사람도 없고그래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	학교 특강을 제가 잘 모르니 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윤희정 나비효과 들으신 후에 혼자 셀과 문학을 한 번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삼문 푸세요 ^^.
영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하나만 풀고 나중에 몰아서 푸세요. 수능 때 다가오면 풀 거 없어집니다. 단어는 경선식 외우세요. 문법은 차라리 마더텅으로 분석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잘 짜셨네요. 어차피 사문은 기출만 돌리면서 표풀이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개념에서 얻을게 별로 없는 과목이죠.bb 생운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문문제집은 기출이랑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게 도움이 됩니다. 홀로서기에서 사회문화 기출 사서 다 공부하십시오. 교육청+ 사설모의고사.
제 목	예비 고3 이과 공부법 좀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ans4758 (의대가 초아요) 550303 받은시간2014-12-30 19:10:53
9월모의고사 성적	
언 수 외 화1 생1 91 94 80 48 42 등급 2 1 2 1 2 백분위 90 98 93 99 93	
11월 모의고사 성적	
언 수 외 화1 생1 86 77 97 34 45 등급 2 2 1 2 1 백분위 92 92 96 89 96 (11월 모의고사 백분위는 학교에 내서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국수영탐 합쳐서 백분위는 2.x%~3.x%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어는 2학년 6월까지의 까지는 계속 문제 없이 1등급이었는데 9월에는 나머지는 다맞고 문학에서 점수가 다나갔구요 11월에는 비문학은 거의 다맞고 문법이랑 문학에서 많이 나갔네요. 이번에 문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문법적 지식이 어렵게 나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이때까지 국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턱없이 적어서 모의고사 며칠 전까지 공부를 거의 안한 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수학은 항상 2등급 중~상위 아니면 1등급 하위가 나와요. 9월에는 30번이 전부 정답처리가 되었고 21번 29번을 풀어서 좋은 백분위가 나왔는데 11월에는 21번 29번 30번을 풀지 못했고 다른 4점 문제에서도 시간을 뺏기고 실수를 해서 2등급 중간쯤을 받았네요. 수학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2학년이 되면서 30번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개념도 완전하진 못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겨울 방학때	

수학교과서로 개념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개념정리가 괜찮을지 의문이 드네요. 적통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기백은 거의 개념만 겨우 아는 수준입니다. 수학을 내신때문에 다녔는데 별 도움이 안되서 옮기거나 끊을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인강도 들을 생각입니다. 수학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싶어서 고민이 가장 많이 됩니다.

영어도 국어처럼 거의 계속1이어서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9월에 어렵게 나왔을때 2등급이 나온걸 보면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단어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독해속도도 키워야할 것 같아요. 문법은 이때까지 틀린적은 거의 없는데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영어 문법 문제를 물어보면 설명하기 때가 꽤 있어요.

화학은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렵게 나오니까 백분위가 확 떨어졌네요. 그래도 수능은 화1을 볼 생각입니다.

생명과과학은 내신공부를 열심히 한덕에 유지할 수 있었네요.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라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물2화2생2를 모두 공부해야하고 학교 경시대회를 준비하려면 생2를 무조건 공부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수능도 생2를 보는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학교 시험기간에 생1 수능을 풀어봤더니 20번 빼고 다 맞아서 47점을 받았는데 20번문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암기만 열심히 하면 생2가 더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서울대에 큰욕심은 없고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수능공부량이 매우 부족해서 성적이 계속 진동하는 것 같아요. 방학이 와서 본격적으로 수능공부를 해보려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과목별 공부법 좀 부탁드립니다

2. 생1 생2 어떻게 나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국어	공부량 최대한 줄이고 1시간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정도면 기출 (마달) 돌리다가 9월 이후에 모의고사 풀면서 감잡으면 됩니다. 기출 마달계속 돌리면서 EBS연계 추가해주고 문법강의나 하나 들으면 될 겁니다.
수학	인강들으세요. 딱 거 다 필요 없고, 한석원 '알파테크닉' 2번 돌린 후에 선택적으로 '크리티컬포인트' 수강하고 다호라 4번 풀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죠? 이정도만 하면 차고 넘칩니다.
영어	이명학 '신택스' -> '리로직' -> 마더텅 기출입니다. 이명학 신택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영어 문법을 잘 몰라도 어느정도 점

	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학선생님은 영어의 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법지식을 암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우철 선생님보다 이명학 선생님이 맞을 것 같네요.
탐구	생2하셔야죠. 2과목 어렵다고 서울대 포기하며 공부하면 실제 수능에서 의대갈 성적 안나옵니다. 쉽게가려고 하지마십시오.
제 목	이과 예비재수생입니다.. 지도좀..
보낸 사람	lussica (갈거임) 489024 받은시간2014-12-31 17:27:56
	흐아..2015 국영수화1생1 22123 받은 학생입니다. 국어와 생물이 좀 불안한 편이라 작년 6,9평은 31111과 12113을 맞았는데요. 수능에서는 결국 똥을 찌네요. 하하하하하.. 국어는 마달 1권 4회독만 했는데요. 2권을 안풀어서 그런가 $\pi\pi$ 영어는 명학쌤테크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기에서 틀려서 2등급의 나락으로 떨어지긴했지만 이제 빈칸과 순서같은 곳에서는 떨지는않고. 수학은 특목고재학중인데 내신도 2등급 정도나오고 평소에 수학센스가 좋다는 소리는 많이들어본거같습니다..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같은경우도 92~100은 고정입니다. 화1생1은 정말 기출이랑 백브 여름만 듣고 제풀리는대로 그냥 기출 계속풀고 노트 정리했는데 생물에서 눈장애질을 하도많이해서.. 하... 이런상태에서 국영수화1생1어떻게해야될까요.$\pi\pi$
국어	마달 1권만으로는 기출분석의 포괄성이 떨어집니다. 2권도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7개년 기출분석을 따로 하시길 바랍니다.
수학	특목고 내신 2등급 정도이면 이미 기초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위권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능 2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실수여부나 컨디션 여하에 상관없이 수학 실력이 완전하대곤 보기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학생같은 경우에는 한석원 알파테크닉이나 이창무 개념의 정상 수강을 추천합니다.
영어	영어 같은 경우에 질문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년동안 EBS를 통한 문풀 및 해석 공부와 그에 더불어 기출분석이나 문제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개념부터 새로 하십시오. 화1 생1 모두 좋은 강사분이 많으셔서 강사 한분을 특정해드리기 힘들고 직접 오티와 맞보기 들어보시고 고르셔서 커리 타시면 됩니다.
제 목	안녕하세요 공부법에 대해 조언을듣고싶어서 쪽지드려요
보낸 사람	parkmi97 (눈누난나) 465690 받은시간2014-12-31 19:47:45
	안녕하세요 저는예비고삼이과인데 공부법에 대해 조언을 얻고싶어서 쪽지드려요 11월 모의평가 성적은 국영수화생 11232인데요 국어는 거의 백점이거나 하나틀려서 이번겨울방학에는 국어따로안하고 보충때 문학이랑고 전해주는거 과제만 충실히하고 마달을돌리려고하는데 언제부터 하는게좋고 몇회독하는게 좋을까요? 수학은 일학년때부터 9월까지 항상 삼등급이였어요 그래서 이등급맞은게 실력보단 운도 있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개념서정독 예제유제풀기 알텍개념듣고 문제풀고 문풀강의 듣고 알텍한다음에 기출을 돌

릴생각이에요

알텍은 몇회독하는게 적당한가요? 그리고 개념서가 집에 개념플러스유형 개념편이 있어서 푸려는데 이 책으로 해도 안좋은점은 없겠죠? 그리고 개념서 알텍 기출말고도 할게 더 있나요? 가격부담때문에 알텍만들수있는 상품으로 결제를 했는데 크리티컬포인트도하는게 좋을까요?

영어는 항상 삼등급이었어요 단어도 부족하고 시간도부족하고 해석도안되고 해석이 되어도 흐름을 파악을못했었어요 그런데 9월에 이등급이 나오고 11월엔 일등급이나왔어요

이것도 제실력보단 11영어가 너무쉬워서 변별력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단어는 워드마스터 모르는단어랑 신텍스에서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서 외우고있는데 워드마스터한번보면 이후에 학교내신으로본 능률보카를 더볼지 명품보카를 볼지 고민이에요 한단어장을여러번보는게 좋다는 소리를 들긴했는데 명품보카에 독해에 쓰이는 동사들이 많더라구요.. .

독해는 신텍스를 듣고있고 다들으면 리로직강의를구매해서 들을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법이 약해서 시험에 자주나오는것들을 따로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기출도 보라던데 어느시기에 시작하는게 좋나요? 신텍스끝나면 들을까 생각하고있기는해요

그리고 ebs는 어떻게 보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할지 가장 감이 안잡혀요 ㅠㅠ

탐구는 화학생물선택했는데 화학에 많이약해서 고석용선생님 프리패스사서 풀커리타기로 했어요

생물도 프리패스를 사기엔 가격부담이 있어서 백호선생님 개념이랑 문풀강의만 들으려했는데 풀커리타는게 더좋나요?

그리고 다섯과목다 어떤순서로 시기마다 뭘 해야할지가 가장궁금해요....ㅠ

주변에 정보를 얻을곳이나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게되었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항상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국어	국어 성적이 높으신 걸 보니 독해력은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능 국어는 지금 까지 푸시던 국어 문제와는 다르고 또 수능의 코드를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 시기는 상관없으나 수능때까지 최소한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수학	알텍강의의 개념설명부분은 2번 정도 듣는 것을 추천하고 그냥 눈으로 복습하는 거는 회독의 제한이 없이 틈틈이 계속 반복하시는게 합당합니다.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깊게 공부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 선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알텍을 확실하게 공부하셨다는 가정 하에 크리티컬포인트 풀이 및 수강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	한 단어장을 여러번 보는게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명품보카 보다는 워드마스터가 더 편찮은 단어장이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바꾸시기 보다는 워드마스

	터를 수능때까지 반복해서 보십시오. 어법은 선택스를 완벽히 공부하신다는 가정 하에 방대한 강의를 수강할 필요는 없고 파이널 기간에 강사들 파이널 강의에서 어법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최원규샘의 그램스페셜(강의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가 강의수도 10강 이하라서 정리하기 좋습니다. 기출 분석은 선택스 완강 이후 체화 과정을 기출로 하기 때문에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EBS는 요약 강의보다는 혼자서 한문장씩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와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을 체크하고 주제문을 찾아 형광펜을 치고 자기 스스로 주제문을 만들어 적어 보는 식으로 공부하면서 해석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과탐	개념과 문제풀이 강의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파이널 강의는 그 해 트렌드에 맞춰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 정제된 모의고사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목	예비고3 공부계획
보낸 사람	96fd984693eaba178ec0 (유민환) 512664 받은시간 2014-12-31 22:25:38
	안녕하세요 요번부터 이제 뽀공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고2 11월 국어a형 수학b형 영어 다 3등급이구요 생1 지1 둘다 2등급입니다 일단 수학은 적통하 빼고 생질 다들었구요 국어는 지금 전형태 올인원 문법 끌어냈구요 수학 영어 이명학 한석원 프리패스 끝냈구요 이명학은 일리 들었구요 과탐은 백호 섬개완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때 부터 공부좀 해볼려구 합니다 최대한 14시간에서 최소10시간정도 공부할 것이구요 국어는 1시간 고정으로 줄겁니다 시간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3등급이 고2때 나왔습니다 문학에서 거의다틀립니다 비문학은 한두개 틀립니다 문학은 접근자체가 어려워요 π π 수학은 한석원 선생님 풀커리 타고 다호라 기출 그리고이명학선생님도 풀커리 타고 마더텅기출로 체화하면 되겠죠? 과탐은 풀커리 타구요 다른 방법있다면 추천부탁드려요
국어	국어를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실력을 올리는 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사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1시간동안은 풀로 기출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신다면 박광일 선생님 강의를 추천하고 독학하시게 되면 마닿을 추천하며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안내대로 공부하십시오.
수학	한석원 샘 풀커리 + 다호라 기출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은 필요없습니다.
영어	이명학 선생님 '풀커리'를 타신다면 그 과정에 기출분석 체화와 EBS가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에 다른 공부는 필요없습니다.
탐구	탐구는 인강이 갑입니다.

제 목	안녕하세요 !
보낸 사람	8ade6089be43e262cbba (쌍갈) 509759 받은시간2015-01-01 02:00:32
안녕하세요 ! 올리신 글 보고 혹시 저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쪽지보내봅니다 ^^ 의대를 목표로 하다가 2~3학년 올라와서 놀아제끼는 바람에 현재 재수 조기선발반 다니고 있는데요 .. 요번에 의대에 다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등급은 국a/수b/영/화1/생2 3/5/3/4/2 입니다 우선 국어는 ebs연계교재랑 수능예측국어 가지고 했고요 문법, 문학공부는 따로 안하고 학교 수업시간에만 했습니다 ^^.. 해도 안해도 3~4등급이예요.. 영어는 ... 공부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시간에 ebs 교재 나가는거 수업듣고 내신 기간에 잠깐 보고 끝냈어요 따로 단어책 정해서 외운 것도 없고요.. 듣기도 안한지 일년 ?이년 됐는데 듣기는 절대 안틀리고요 (그래도...혹시 모르니까 듣기 공부를 따로 해야할까요?) 그냥 중학교 때 외고 준비했던 감으로 풀어서 간신히 3등급나옵니다 ...^^ 화 1은 저한테 재미도 없고(..)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지1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지1은 2학년때 내신 공부밖에 안해봤습니다 생2는 저희 학교 쌤이 잘가르치셔서 학교 수업 듣고 ebs랑 기출같은거 풀고 했었고요,, 2등급 컷입니다 수학이 제일 불안한데 제가 수학문제를 정말 안풀었습니다ㅜㅜ 기출이고 뭐고 안풀었고 정승제 개때잡만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이랑 인강만 듣고 복습을 잘 안해서 공식 몇 개 외워서 수능 본 수준인데... ㅜ 그나마 알던 공식들도 흐릿해져가요 ^^ 조기선발반에서 수학 수업을 많이 하는데 자신있고 재미있어하던 부분만 들리고 나머지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 수학좀 짹 잡고 싶네요 소원입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재수를 예감하고(...) 수능에 꼭필요한 고등수학과 완포자 중학수학은 한바퀴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인강을 많이 추천해 주시던데 제가 다니는 학원이 대성..이라서요
 학원생 할인이 많이 돼서 마이맥 올프리패스 끊을까 하는데
 인강은 되도록 대성쪽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당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하는건 자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커리 짜주시면 선생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재종반 스케줄도 뻗세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꼭! 이행하겠습니다!!

쪽지가 많아서 일일이 답장해주기 힘드실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어	수능에측국어를 공부하셨다면 그 책 나름의 기출분석의 방향성을 익히셨을 겁니다. 그대로 기출분석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른 공부방법은 강의를 들으신다면 박광일 선생님 강의를 추천하고 독학하시겠다면 마달을 추천하며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안내대로 공부하십시오. 문법은 강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규호 선생님의 문법강의나 박광일 쌤 ‘따옴표’ 전형태 쌤의 ‘형태잡기 문법’을 추천합니다.
수학	학원의 수학 수업을 들어보시고 웬만큼 수업의 질이 괜찮으면 그냥 개념은 학원을 따라가시고 혼자 자습시간에는 강의 복습과 기출+심화문제풀이를 하십시오. 문제집으로는 ‘수학영역의 비밀’ 혹은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 말고 인강으로 개념을 잡고 싶으시다면 신승범 ‘수능적 해석’, 한석원 ‘알파테크닉’을 추천합니다. 둘 중에 오티, 맛보기를 들어보신 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개념강의를 충실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	듣기를 지금까지 안틀렸다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구문공부를 통해 기본적인 영어 해석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심우철 ‘12시간 독해’ 최원규 ‘Sight Translation’ 김기훈 천일문 이명학 선택스를 추천합니다. 이 중에 직접 오티 맛보기를 들어보신 후 선택하여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병행하여 단어장을 워드마스터, 경선식 수능영단어, 명품보카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서 수능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과탐	과탐은 인강 커리 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성 프패이시면 대성에 계신 선생님들 오티와 맛보기 수강 후 신중히 선택하신 다음에 커리타시는 것이 좋습니다.